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The Household Financial Problem by Extracurricular Lesson Expenses of High School Student

한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윤성인
교수 임정빈

Dept. of Home Management Hanyang University
Doctoral Course : Sung In, Yoon
Prof. : Jeong Bin, Im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III. 연구문제 및 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majo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xtracurricular lesson expenses on the Burden of Household Expenditure. The data are collected from 537 housewives with a child aged 18 (2nd grade in high school) in Seoul. The statistics used for the data analysis are frequency, percentage, crosstables, one 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The statistic softwear used for this study is SPSS.

The Result on a base of empirical analyses follow :

1. Respondent's expenditure on extracurricular lesson fees is about 430,000 won per month, which is about 28% of the living cost.
2. There are four types of the methods preparing extracurricular lesson fees : 'Frugal Type', 'Excess Type', 'Composit Type', 'Self-supportable Type'.
3. Region, the living cost, sex of children, net worth, and the mother's education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xtracurricular lesson expenses.
4. The regression analyses incicate that Burden of Household Expenditure increased by 1.9 point according to 1% increase in expenditure on extracurricular lesson fees. The higher budget share of expenditure on extracurricular fees, the higher level of Burden of Household Expenditure.

I. 서론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녀의 의미와 가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에서는 자녀의 출산이 곧 노동력 확보를 의미했으므로 자녀의 수는 가정의 부(富)로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의 발달로 가정의 생산적 기능이 사회로 이전된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노동력의 질에 따라 소득 및 사회적 성취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자녀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능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가정자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자녀의 미래성취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인적자본 투자형태로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들 수 있다 (Shultz, 1961 ; Becker, 198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사회적 지위상승은 곧 가족의 지위상승을 의미하며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자녀의 지위상승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교육은 가정생활에 있어 중요한 생활목표가 되고 있다 (임정빈 외, 1995).

우리사회에서는 자녀의 인적자본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가 전에 비해 증가하였고 가정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경제적으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지출항목은 사교육비이고, 그 다음이 주택관리비·집세, 저축·보험료·젯돈, 상환금·이자·불입금, 가족의 관혼상제 비용, 세금, 식비, 교통비, 옷값, 문화·레저비, 의료비 순이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치면 교육관련지출비용이 가장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1996년 9월 22자).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고액 과외 및 학원과의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입시위주 교육과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고액과외 및 학원과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하면 1998년 과외비로 지출된 금액은 11조9천억원에 달하며 이 금액이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5%로 1994년의 1.86%에 비해서 약 2배가 늘어났다(한국교육개발원, 1999). 현대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

면, 1998년 IMF관리체제의 상황에서 가계지출은 35.7%가 줄었고 가장 지출을 많이 줄인 항목은 의복 구입비(32.4%)와 외식비(26.2%)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과외비 지출(5.3%)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현대경제연구소, 1998). 또한 한국은행이 전국 16개 도시 2천5백가구를 대상으로 1999년 1월~3월 동안의 소비자동향을 조사한 결과, 가장 먼저 늘어날 것으로 꼽힌 소비지출항목은 교육비인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1999년 4월 11일자).

가계소비지출 중에서 과외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다른 소비지출 분야에서의 내핍을 의미한다. 가계는 전 가족원의 공동의 목적과 성장 발달에 목표를 두고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고 소비할 때, 균형있는 가족복지를 달성할 수 있다. 한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과외학습비의 증가는 다른 지출항목에 대한 압박을 불러올 수 있고 그러한 부담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정영숙, 1996).

따라서 과외학습비의 표면적인 경제적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과외학습비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과외학습비 지출실태,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및 과외학습비 지출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과외학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파악함으로써 가계지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교육투자과 안정성있는 가계유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과외학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부모관련변인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김성희, 1995; 김은정, 1995; 정영숙, 1996; Abdel-Ghany & Foster, 1982).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 과외수업비, 특기지도비, 단체활동비 등의 지

출이 많고(김용재, 1992; 주영랑, 1992) 자녀의 대학 진학율도 높다(Connolly & Gottschalk, 1995). 즉, 교육을 많이 받은 어머니는 소수의 자녀를 우수하게 키우기 위해서 고등교육을 시키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된다(생활경제모임 역, 1994).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자녀의 교육비 지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업주부의 가정에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높으며 생계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크다는 보고가 있다(정영숙, 1993, 1996). 반면에 취업주부의 가정에서 교육, 교양오락 등의 선택적 소비지출이 더 많다는 보고가 있어서(양세정, 1993)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교육비 지출은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는데 이는 취업동기, 직업지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주된 척도이며 이는 자녀에게 투자하는 비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Espenshade, 1984, 김성희, 1995 재인용). 전문관리직과 전문기술직에 종사하는 가정에서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고(최승애, 1985; Espenshade, 1984),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가정보다 자영업인 경우에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많다는 보고가 있다(김성희 문숙재, 1996).

근로소득과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여정성, 1994; 정영숙, 1996; Lino, 1990, 1994). 즉,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많고, 그 중에서도 사교육비, 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영랑, 1992).

순자산과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가계의 순자산이 많으면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으며(임정빈 외 7인, 1995),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한다고 하였다(김은정, 1995). 즉, 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지출 중 매우 우선적인 비목이므로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정이 보유한 순자산의 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현재 가정의 소득을 초과하여 교육비를 지출할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도시, 중소도시 등의 순으로 교육비 지출이 많으며 서울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가 34만8천원으로 이 중 과외비는 전국 평균치인 15만 6천원 보다 많은 24만원이다(대우경제연구소, 동아일보 1995년 5월 4일자). 서울에서도 지역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박상학(1992)은 강남, 서초 등 강남부의 학생들이 과외 이용률이 높고 과외비용도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임정빈 외 7인(1995)은 강남에 거주하는 중상집단이 강북의 중상집단보다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서울시 교육청(1996)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내 중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1만원이며 강남지역 학생들은 19만원으로 서울시내 다른 지역 평균 과외비 10만원의 약 2배 가깝다고 하였다(한겨레 신문, 1996년 11월 11일자). 즉 서울 및 대도시일수록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많으며 특히 서울에서는 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

2) 자녀관련변인

자녀의 학업성적은 자녀가 가진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서 부모의 기대나 투자여부 및 투자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녀의 성적과 교육비 지출과의 관계는 그 지출액에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연구(임정빈 외 7인, 1995)가 있는 반면, 사교육비, 부교재비, 교양도서비, 학원수강비, 과외활동비와 자녀의 학업성적과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김용재, 1992; 이전종, 1992).

우리나라에서는 딸보다는 아들에게 거는 기대교육 수준이 더 높다(박평식, 1984; 박미령, 1992; 유가효 외, 1992). 따라서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아들에게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할 것이다. 또한 출생순위별로 보면, 첫째자녀는 둘째 이하의 자녀에 비해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Leibowitz, 1974)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장남인 경우에 기대교육 수준이 더 높다(박미령, 1992). 또한 첫째자녀의 사교육비가 둘째 자녀보다 더 많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결과는 출생순위에서 오는 차이이기보다는 학년

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수도 있다고 하였다(임정빈 외 7인, 1995).

3)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헌신하고 자녀를 통해 대리성취를 느끼고자 하는 경향, 즉 자녀에 대한 일체감 및 동일시 정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동일시 정도가 높다는 것은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자녀와의 개별화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한다. 중년기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동일시 정도가 높으면 기대교육수준이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진미정, 1994)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을 더 많이 한다(주영량, 1992). 즉 자녀에 대한 동일시 정도가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많아질 것이다.

2. 과외학습비지출과 가계소비지출곤란도

1) 가계소비지출곤란도

재정문제는 기대수준의 향상과 물가상승이 가족의 자원관리에 긴장을 초래하게 될 때, 긴장을 해결하려는 가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소득수요가 소득공급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Mitchell, Bullard & Mudd, 1962; Williams, Nall & Deck, 1976 재인용). 또한 가족의 소비행동이 비합리적일 때, 가정생활주기단계에 따라 그리고 주부의 가계재정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재정문제가 발생하며, 그 외에 가정의 소득이 중단되거나 크게 줄어들었을 때, 가족구성원의 질병, 예기치 않은 지출이 생길 때, 자녀교육, 그리고 주택마련등 미래육구나 예상했던 요구에 의해 비교적 큰 재정지출이 생길 때 재정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보선, 1991).

소비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체로 가정경제문제경험, 재정문제곤란도, 가계경제문제지각, 주관적 압박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가정경제문제경험은 가계소득을 통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소비·지출의 측

면에서 어느정도 경제문제를 경험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심리적 인지이며, 구체적으로는 주요가계지출비목인 음식물비, 주거비, 의복비, 자녀교육비, 광열비, 보건위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교제비, 공과비, 예비비 등의 소비지출에서 어느정도 경제문제를 경험하였는가를 측정하였다(고보선, 1991). 재정문제곤란도는 가계소비지출 비목 중 음식물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잡비 등을 지출할 때 어느정도 재정문제를 느끼는가를 측정하여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를 측정하였다(김순미, 1991). 가계경제문제지각 및 주관적 압박감은 어느 특정 소비지출의 부담으로 인하여 다른 소비지출에서 어느정도 경제문제를 느끼는가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정도를 말한다(배순영, 1991; 김인숙, 1995).

소득이 일정한데 자녀 과외학습비가 증가하게 되면 다른 부분의 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되어 가계운영이 어렵게 된다. 즉, 가계의 과외학습비 지출부담이 커질수록 생활의 여러 면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계소비지출곤란도란 가계소득을 통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과외학습비 지출 부담 때문에 다른 소비지출 부분에서 제대로 소비·지출할 수 없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심리적인 인지를 말한다.

2) 과외학습비와 가계소비지출곤란도

자녀의 과외학습비 지출과 가계소비지출곤란도에 관한 연구는 거의 미미한 실정이며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가정에서 가장 심각하게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사건은 자녀의 과외비라는 보고가 있고(옥선화 외 4인, 1990; 임정빈 외 7인, 1995; 최자영 1995),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을 갖게 하는 지출비목 역시 과외비를 포함한 교육비라고 하는 경우가 전체의 32.1%로 가장 높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축의 목적도 자녀의 교육비 마련인 경우가 23.2%인 것으로 보아(한국소비자보호원, 1993) 각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비를 위한 재정적 부담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 및 과외학습비는 가계의 경

제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이며 사교육비가 많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복지감은 낮아진다(정영숙, 1996).

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의 일반적인 경향 및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관련변인(부모 및 자녀관련 변인) 및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는 과외학습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에 따라 과외학습비 지출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과외학습비 지출은 가계소비지출곤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5〉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에 따라 가계소비지출곤란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도구 및 측정

1) 과외학습의 형태 및 비용

과외학습은 학교에서의 정규수업 이외에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그리고 대학입학시험이나 학교 성적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 있는 수업을 말하며 기술, 기능 그리고 취미활동을 위한 교습행위는 본 연구에서 제외시켰다.

과외학습의 형태 및 비용에 관한 문항은 정영숙(1996)과 신세호 외(1991)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다. 그 세부내용은, 대학생에게 혼자 받는 과외, 대학생에게 2~4명에 같이 받는 과외, 대학생에게 5~10명이 같이 받는 과외, 학원강사 또는 교사에게 혼자 받는 과외, 학원강사 또는 교사에게 2~4명이 같이 받는 과외, 학원강사 또는 교사에게 5~10명에 같이 받는 과외, 일반 단과학원, 기타 등의 8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응답자에게 현재 받고 있는 모든 과외형태에 표시를 하고 각각의 월평균 비용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2)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은 자녀의 과외학습비 지출을 위해 부모가 취하는 행동이다. 가족원의 취업을 통한 소득증대, 자산이용, 재산처분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무리형」이며 생계비를 줄여서 마련하는 경우는 「내핍형」이며, 아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여력형」이며, 무리형과 내핍형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는 「종합형」으로 구분하였다.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은 김유경(1995), 주문자(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표 1〉), 응답자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방법에 표시를 하게 하였다.

3) 가계소비지출곤란도

가계소비지출곤란도는 가계소득을 통하여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과외학습비 때문에 제대로 소비·지출하지 못하는 정도에 대한 주관적·심리적으로 곤란을 인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가계소비지출곤란도는 고보선(1991)과 김인숙(1995)의 척도를 기초로 연구자가 수정·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식생활비 3문항, 주생활비 3문항, 교양·오락비 2문항, 의생활비 2문항, 노후준비 및 예비비 2문항, 기타 잡비 4문항 등으로 총 16 문항을 5점 Likert형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외학습비로 인해 가계소비지출에 곤란을 많이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의 α 계수는 .93이었다.

4) 자녀와의 동일시

자녀와의 동일시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어느 정도 일체감을 느끼며 자녀와 어느 정도 개별화가 되었는가를 말한다.

자녀와의 동일시는 진미정(1993)과 김유경(1995)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녀에 대한 금전적·정신적인 희생과 헌신의 수용정도, 자녀의 성취에 대한 동일시 등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Likert형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정말 그렇다”에 5

〈표 1〉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의 질문문항

마련방법	질문문항
무리형	1. 남편이 부업을 한다.
	2. 본인이 취업을 하거나 부업을 한다.
	3. 동산이나 부동산을 팔았다.
	4. 저축이나 투자한 것을 처분하였다.
	5. 자녀가 어렸을 때 미리 저축을 해 두었다.
	6. 빚을 졌다.
내핍형	7. 생활비를 줄여서 충당한다.
	8. 부족하기는 하나 사용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지출한다.
종합형	무리형 + 내핍형
여력형	아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 동일시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의 α 계수는 .75이었다.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둔 주부이다. 조사대상자를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의 자녀를 가진 주부로 제한한 이유는 과외학습은 주로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표집은 서울시를 강남과 강북으로 나누어 지역과, 자녀의 성별을 고려하여 유의표집하였으며 예비조사는 1996년 9월 2일~8일까지 실시하였고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9월 10일~9월 16일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서초구의 S고, 강남구의 S여고, 송파구의 J고, 동작구의 H고, 노원구의 S여고, 성북

구의 K고, 은평구의 B여고, 성동구의 H고 등 8개 고등학교의 선생님에게 부탁하여 학생들을 통해 배부하여 그 어머니들이 질문지에 기입하게 한 후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질문지는 1000부를 배부하여 총 843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완전한 설문지를 제외한 537부가 분석에 이용되었고, 이 중 과외를 하고 있는 집단의 질문지가 424부이고 과외를 안하고 있는 집단의 질문지는 113부이다.

4. 자료의 분석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문제의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χ^2 , ANOVA, 중다회귀분석 등을 하였다. 이상의 통계처리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N = 424)

변 수	집 단	빈 도 (%)
주부의 연령	40세 미만	47 (11.1)
	40~50세 미만	367 (86.6)
	50세 이상	10 (2.3)
평 균	44.15세	
주부의 교육정도	고졸	264 (62.3)
	대졸이상	160 (37.7)
평 균	12.97년	
주부의 취업여부	취업주부	113 (26.6)
	전업주부	310 (73.1)
남편의 직업	전문직	68 (16.0)
	관리직	150 (35.4)
	사무직	116 (27.4)
	판매·서비스·생산직	87 (20.5)
월평균소득	150만원미만	18(4.2)
	150만원~200만원미만	44(10.4)
	200만원~300만원미만	158(37.3)
	300만원이상	204(48.1)
평 균	284.4만원	
월평균 생계비	100만원미만	69(16.3)
	100~200만원미만	181(42.7)
	200~300만원미만	103(24.3)
	300만원이상	71(16.7)
평 균	182.3만원	
순 자 산	5000만원미만	22(5.2)
	5000만원~1억미만	45(10.6)
	1억~2억미만	92(21.7)
	2억~4억미만	129(30.4)
	4억이상	60(14.2)
평 균	2억9천7백4십4만원	
거 주 지	강남	215 (50.7)
	강북	209 (49.3)
자 녀 수	1명	25 (5.9)
	2명	283 (66.7)
	3명이상	113 (26.6)
자녀의 성적	1등~10등	164 (38.7)
	11등~30등미만	171 (40.4)
	30등 이하	74 (17.5)
자녀의 성별	딸	245 (42.2)
	아들	179 (57.8)

2. 과외학습형태 및 과외학습비 지출의 일반적인 경향

과외학습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살펴보면, 11~20%이하가 33.6%, 10% 이하가 20.4%, 21~30%이하가 19.9%, 41% 이상이 15.2%, 31~40% 이하는 10.9% 순이며 평균 27.9% 이다. 도시 근로자 가계에서 40~49세에 해당되는 가구의 소비지출구성비를 살펴보면, 식료품이 약 2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는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도시가계연보, 1996). 본 연구의 조사대상가구에서는 과외학습비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인 가구가 26%나 되므로, 이러한 가계에서는 균형있는 소비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3.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1) 일반적인 경향

과외학습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내핍형 즉, 생계비를 줄여서 충당하거나 부족하지만 사용가능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각각 157명과 146명으로 나타났다. 주부가 취업을 하거나 부업을 하는 경우가 86명, 저축이나 투자한 것을 처분하는 경우가 93명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을 무리형, 내핍형, 여력형, 종합형 등으로 구분하면, 내핍형이 37.8%, 무리형이 23.2%, 종합형이 23.5%, 여력형이 15.4% 순으로 나타났다. 무리형과 종합형은 자녀의 과외학습비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집단이며 조사대상자의 46.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년기 가정에서 과외학습비는 자녀의 대학입학을 위한 필수적인 비목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금전자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4).

〈표 3〉 과외학습의 형태 및 비용

(N = 424)

		구 분	빈도(명) ¹⁾	비용(만원)
과외형태 및 비용		일반 단과학원	221	24
		대학생에게 혼자 받는다	130	37
		학원강사 또는 교사에게 5~10명이 같이 받는다	94	41
		학원강사 또는 교사에게 2~3명이 같이 받는다	40	48
		학원강사 또는 교사에게 혼자 받는다	34	77
		대학생에게 2~3명이 같이 받는다	24	25
		대학생에게 5~10명이 같이 받는다	3	6
		구 분	빈도	(%)
과외학습비		20만원 미만	90	(21.2)
		20~40만원 미만	159	(37.5)
		40~60만원 미만	75	(17.7)
		60~100만원 미만	62	(14.6)
		100만원 이상	38	(9.0)
평 균		43.2만원		
과외학습비 / 생계비		10% 이하	86	(20.4)
		11~20% 이하	142	(33.6)
		21~30% 이하	84	(19.9)
		31~40% 이하	46	(10.9)
		41% 이상	65	(15.2)
평 균		27.9%		

1) 복수응답이 가능하므로 전체응답자수와 빈도가 맞지 않음

〈표 4〉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N=424)
	질 문 문 항	빈도(명) ¹⁾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부족하기는 하지만 사용가능한 한도에서 지출 생활비를 줄여서 충당한다	146
	저축이나 투자한 것을 포기한다	93
	주부가 취업을 하거나 부업을 한다	86
	빚을 졌다	29
	자녀가 어렸을 때 미리 저축을 해 두었다	26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23
	남편이 부업을 한다	5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무 리 형	98(23.2)
	내 꺾 형	160(37.8)
	여 력 형	65(15.4)
	종 합 형	99(23.5)

1) 복수응답이 가능하므로 전체응답자수와 빈도가 맞지 않음

2) 관련변인 및 자녀와의 동일시정도와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1) 부모관련변인과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부모관련변인과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어머니의 취업여부, 거주지, 소득, 순자산, 생계비 등이 과외학습비 마련방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표 5〉).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을 살펴보면, 취업주부의 경우에는 무리형과 종합형이 비교적 많았고, 전업주부는 내핍형이 가장 많았다. 즉, 취업주부는 전업주부보다 과외학습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금전자원을 마련할 기회가 전업주부보다 많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과외학습비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전업주부는 주로 한정된 월평균 소득 내에서 자녀의 과외학습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본다.

거주지와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을 살펴보면, 강남의 경우에는 무리형, 내핍형, 종합형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자녀의 과외학습비 마련을 위해 아무런 방법도 취하지 않는 여력형은 적었다. 강북의 경우에는 나머지 유형들에 비해 생활비를 줄여

과외학습비를 마련하는 내핍형이 가장 많았다. 즉, 강남에 거주하는 경우는 강북보다 과외학습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과외학습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본다.

월평균 생계비와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은 생계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와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내핍형이 많았고 200~300만원미만과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무리형과 종합형이 비교적 많았다. 즉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주로 생활비를 줄여서 과외학습비를 지출하고 있어 과외학습비가 많지 않더라도 그 비용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가계에 큰 부담을 느낄 것이다.

순자산과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은 순자산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내핍형이 가장 많았고 1~2억미만, 2~4억미만, 4억 이상인 경우는 무리형과 종합형이 비교적 많았다. 즉 가정에 이용가능한 자산이 많은 경우에, 이를 이용해서 자녀의 과외학습비에 투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자녀관련 변인과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자녀관련 변인과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한 결과, 자녀의 형제순

〈표 5〉 부모관련변인과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변 수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계 빈도(%)
	무리형 빈도(%)	내핍형 빈도(%)	여력형 빈도(%)	종합형 빈도(%)	
어머니의 취업여부					
취업주부	38(33.9)	24(21.4)	14(12.5)	36(32.1)	112(100)
전업주부	60(14.2)	136(43.9)	51(16.5)	63(14.9)	310(100)
χ^2	24.2***				
어머니의 학력					
고졸	52(19.8)	107(40.7)	43(16.3)	61(23.2)	263(100)
대졸이상	46(28.9)	53(33.3)	22(13.8)	38(23.9)	159(100)
χ^2	5.4				
아버지의 직업					
전문·관리직	53(24.5)	78(36.1)	29(13.4)	56(25.9)	216(100)
사무직	28(24.1)	42(36.2)	17(14.7)	29(25.0)	116(100)
판매서비스·생산직	17(19.5)	37(42.5)	19(21.8)	14(16.1)	87(100)
χ^2	7.0				
거주지					
강 남	63(29.0)	63(29.4)	26(12.1)	63(29.4)	214(100)
강 북	36(17.3)	97(46.6)	39(10.8)	36(17.3)	208(100)
χ^2	21.0***				
생 계 비					
100만원미만	14(20.9)	35(52.2)	8(11.9)	10(14.9)	67(100)
100~200만원미만	30(16.6)	77(42.5)	29(16.0)	45(24.9)	181(100)
200~300만원미만	33(32.0)	29(28.2)	12(11.7)	29(28.2)	103(100)
300만원이상	21(29.6)	15(21.1)	16(22.5)	19(26.8)	71(100)
χ^2	25.1***				
순 자 산					
1억 미만	10(15.2)	31(47.0)	11(16.7)	14(21.2)	66(100)
1~2억 미만	35(38.0)	17(18.5)	11(12.0)	29(31.5)	92(100)
2~4억 미만	41(31.8)	30(23.3)	19(14.7)	39(30.2)	129(100)
4억 이상	22(36.7)	8(13.3)	12(20.0)	18(30.3)	60(100)
χ^2	18.9*				

* p<.05 ** p<.01 *** p<.001

위가 과외학습비 마련방법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형제순위가 첫째인 경우에는 무리형, 내핍형, 종합형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여력형은 적게 나타났다. 반면, 둘째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유형에 비해 내핍형이 많았다. “첫째 아

이가 잘 들어가야 다음 아이도 잘 들어간다”라는 말도 있듯이 장남이나 장녀에 대해서는 부모들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의 학습에 대한 지원도 훨씬 열의를 가지고 한다. 그러나 두 번째 자녀부터는 첫 번째 자녀의 입시준비 경험을 토대로 기대수

〈표 6〉 자녀관련 변인과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변 수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계 빈도(%)
	무리형 빈도(%)	내핍형 빈도(%)	여력형 빈도(%)	종합형 빈도(%)	
형제순위					
첫째	95(26.0)	67(36.8)	30(11.6)	66(25.6)	258(100)
둘째이상	31(18.9)	65(39.6)	35(21.3)	33(20.1)	164(100)
χ^2	9.78*				
성 별					
아 들	44(24.6)	60(33.5)	27(15.1)	48(26.8)	179(100)
딸	54(22.2)	100(41.2)	38(15.6)	51(21.0)	243(100)
χ^2	3.34				
성 격					
상	40(24.4)	59(36.0)	23(14.0)	42(25.6)	164(100)
중	37(21.9)	64(37.9)	26(15.4)	42(24.9)	169(100)
하	19(25.7)	30(40.5)	13(17.6)	12(16.2)	74(100)
χ^2	3.20				

* p<.05

준을 조절하며 지원정도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둘째자녀보다는 첫째 자녀인 경우에 과외학습을 위한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본다.

(3)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와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조사대상자의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의 평균은 3.8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자녀에 대한 일체감 및 과잉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와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고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는 3.5이하를 下집단, 3.6~4.0이하를 中집단, 4.1이상을 上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표 7〉).

교차분석 결과, 동일시 정도가 높은 집단과 중간 정도인 집단은 무리형, 내핍형, 종합형이 고르게 분포되었고, 낮은 집단은 여력형이 가장 많았다. 여력형 집단은 순자산 및 생계비 수준이 어느정도 높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단이지만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가 낮아서 어머니와 자녀가 개별화가 잘 된 관계의 집단이므로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무리한 지

출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동일시 정도가 높은 경우에는, 과외학습비 지출이 많으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과외학습비 지출

1) 과외학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관련 변인 및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가 과외학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투입된 변수는 어머니의 학력 및 취업여부, 아버지의 직업, 거주지, 월평균 생계비, 순자산, 자녀의 형제순위 및 성별,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이다. 월평균 소득은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월평균 생계비로 대신하는 것이 가계소비지출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월평균 생계비로 대신하여 분석하였다(〈표 8〉).

중다회귀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이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잔차분석과 다중공선성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선형성에 문제가 있어 회귀분석시 Linear

〈표 7〉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와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계 빈도(%)
	무리형 빈도(%)	내핍형 빈도(%)	여력형 빈도(%)	종합형 빈도(%)	
상	39(30.4)	33(25.7)	22(17.1)	34(26.5)	128(100)
중	35(23.3)	51(34.0)	23(15.3)	41(27.3)	150(100)
하	18(12.9)	40(28.7)	62(44.6)	19(13.6)	139(100)
χ^2	9.78*				

* p<.01

〈표 8〉 과외학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N = 334)

log (과외학습비)		
변 수	b	β
어머니의 학력	0.441	0.127**
어머니의 취업여부	0.128	0.068
아버지의 직업	0.011	-0.015
거 주 지	-0.370	-0.223***
월평균 생계비(만원)	0.001	0.216***
순 자 산(만원)	6.56E-06	0.172***
자녀의 성별	-0.316	-0.188***
자녀의 형제순위	-0.205	-0.121**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	0.016	0.068
상수		2.41
R ²		0.36
F값		22.36***
Durbin-Watson Test		1.84

1) * p<.05 ** p<.01 *** p<.001

2) 남편의 직업 : 전문직 1점, 관리직 2점, 사무직 3점,
판매·서비스직 4점, 생산직 5점.

3) 가변수 1. 거주지 : 강남 0, 강북 1.

2. 자녀의 성별 : 아들 0, 딸 1.

3. 어머니의 취업유무 : 전업주부 0, 취업주부 1.

4. 자녀의 형제순위 : 첫째 0, 둘째이상 1.

형태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종속변수에 log를 취한 Anti-log형태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과외학습비 지출에는 거주지($\beta=-.223$)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에 거주하는 가정이 강북의 가정보다 더 많은 과외학습비를 지출한

다는 것이다. 이는 과외학습비 지출 및 교육비 지출이 경제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주위의 상황 등 가정 외적인 조건(주위 이웃의 교육비 지출, 지역적인 학원의 수준, 과외선생님의 종류 등),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거주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그 다음으로 과외학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월평균 생계비($\beta=.216$)이다. 월평균 생계비가 높다는 것은 소득수준이 높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므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과외학습비를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자녀의 성별($\beta=-.188$)에 따라 과외학습비 지출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딸보다는 아들에게 더 많은 과외학습비를 지출한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 있어 많은 연구들에서 보면 딸보다는 아들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유가효, 1992 ; 박미령, 1991 ; 박평식, 1982). 그러므로 한정된 가정자원을 자녀의 교육비에 투자할 때, 아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한다.

순자산이 많을수록 과외학습비 지출이 많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2$). <표 5>에서 나타난 것처럼, 순자산이 많은 집단에서는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에 있어서 무리형과 종합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계의 이용가능한 자원이 많을수록 과외학습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학력($\beta=.127$)이 과외학습비 지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과외학습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자녀의 미래생활 및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아 교육비에 많은 가정자원을 투자한다고 본다.

자녀의 형제순위($\beta=-.121$)에 따라서 과외학습비 지출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의 형제순위가 첫째인 경우는 둘째 이상인 경우보다 과외학습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 예전보다 자녀수가 줄어들어 장남 및 장녀의 의미가 많이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첫째 자녀에게 많은 기대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강북보다는 강남에 거주하고, 월평균 생계비가 많을수록, 딸보다는 아들이, 순자산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둘째 이상의 자녀보다는 첫째 자녀에게 과외학습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 회귀식에 투입된 모든 변수들은 이 분산의 36%를 설명하고 있다.

2)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에 따른 과외학습비 지출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에 따라 과외학습비 지출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 분석과 Duncan검증을 한 결과,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에 따라 과외학습비 지출 및 생계비에서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9>).

<표 9> 과외학습비 마련 방법에 따른 과외학습비 지출비율

마련 방법	빈도	과외학습비 지출	과외학습비/생계비
		평균(만원)	평균(%)
무리형	98	62.25	33.32
내핍형	160	31.60	23.57
여력형	65	29.93	16.15
종합형	99	50.89	28.50
F 값		17.00***	9.28***

*** $p<.001$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에 따른 과외학습비 지출은 Duncan검증 결과, 무리형과 종합형은 여력형보다 과외학습비 지출이 많으며, 내핍형은 무리형과 종합형보다 과외학습비 지출이 적다. 무리형과 종합형에 속하는 가정에서 과외학습비를 많이 지출하였으며 이 유형에 속하는 부모는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가 높아 자녀와 개별화가 덜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대학진학을 위한 과외학습비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무리하게 지출하고 있으며, 반면에 여력형에 속하는 부모는 동일시 정도가 낮아 자녀와의 개별화가 비교적 잘 되었으므로 부모가 지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과외학습비를 지출한다고 본다.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에 따른 생계비에서 과외학습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Duncan 검증결과, 무리형과 종합형은 여력형에 비해 과외학습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컸고 무리형은 내핍형에 비해 과외학습비가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즉 무리형과 종합형은 과외학습비를 많이 지출하므로 그 비용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약 30%에 달하며, 여력형에 속하는 가정은 적정수준에서 과외학습비를 지출하여 생계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가계소비지출곤란도

1) 과외학습비 지출에 가계소비지출곤란도에 미치는 영향

조사대상자의 가계소비지출곤란도 평균점수는 3.31로 보통이상의 곤란도를 보였다. 즉, 대부분의 가정에서 과외학습비로 인해 다른 소비지출에서 곤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외학습비가 가계소비지출곤란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순회귀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가 기본가정을 충족시키지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잔차분석과 다중공선성 파악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선형성에 문제가 있어 회귀분석시 linear형태의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독립변수에 log를 취한 Semi-log 형태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가계소비지출곤란도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가계소비지출곤란도} = 41.05 + 1.90 \log(\text{과외학습비 지출})$$

즉,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과외학습비 지출이 1% 증가하면 가계소비지출곤란도가 1.9점 증가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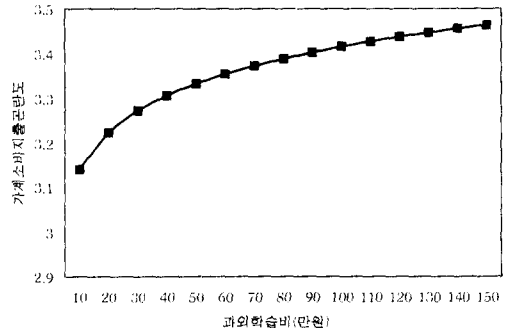
〈표 10〉 과외학습비 지출이 가계소비지출곤란도에 미치는 영향

가계소비지출곤란도		
변수	b	β
log(과외학습비)	1.90	0.11**
상수	41.05	
R ²	0.11	
F값	5.39**	
Durbin-Watson Test	1.96	

** p < .01

이 회귀식을 시뮬레이션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 보면, 과외학습비 지출이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가할때의 가계소비지출곤란도는 3.14



〈그림 1〉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가계소비지출곤란도

점에서 3.30점으로 0.16점이 높아져서,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가할 때의 0.11점과 비교해볼 때,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가계소비지출곤란도가 급격하게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10만원~40만원 정도의 과외학습비를 지출하고 있는 소득이 낮은 계층은 지출이 많은 소득층보다 그 비용은 적지만 가계소비지출곤란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과외학습비로 인한 부담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에 따른 가계소비지출곤란도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에 따라 가계소비지출곤란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과 Duncan 검증을 하였다(표 11)). Duncan 검증결과, 여력형은 나머지 세유형에 비해 가계소비지출곤란도가 낮았으며 내핍형은 종합형에 비해 가계소비지출곤란도가 낮았다. 무리형과 종합형은 과외학습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서 다른 부

〈표 11〉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에 따른 가계소비지출곤란도

가계소비지출곤란도		
마련 방법	빈도	평균
무리형	92	3.59
내핍형	147	3.24
여력형	61	2.56
종합형	98	3.64
F값		27.35***

*** p < .001

분의 소비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무리하게 과외학습을 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각 가정에 심각한 재정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외학습비의 지출실태를 알아보고 각 가정은 과외학습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며 그러한 지출이 가정의 소비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문계 고등학생의 일반적인 과외의 형태는 일반단과대학원, 대학생 과외, 학원강사 및 교사에게 5~10명이 같이 받는 과외 등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원강사 및 교사에게 받는 과외학습의 유형이 고액과외를 주도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많은 가정에서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의 학습의 효과를 고려하여 비용이 많이 지불되더라도 학원강사 및 교사에게 받는 과외형태를 선호한다고 본다.

둘째,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은 내핍형이 가장 많았으며 무리형, 종합형, 여력형 등의 순으로 나타나 많은 가정에서 자녀의 과외학습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자녀의 과외를 위해서 대부분의 가정에서 내핍 내지 무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월평균 과외학습비는 43.2만원이며 이는 월평균 생계비의 28%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문계 고등학생의 분기당 공교육비가 24만2천3백원인 점으로 보아 교육비의 대부분은 사교육비인 과외학습비가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며,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학교교육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넷째, 과외학습비 지출은 강북보다는 강남에서, 월평균 생계비가 많을수록, 딸보다는 아들에게, 순자산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둘째 이상의 자녀보다는 첫째자녀일수록 많이 지출된다. 즉,

딸보다 아들에게, 그리고 첫째 자녀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 여기에서도 남아우선, 장자우선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다섯째, 취업주부이고 강남에 거주하며, 월평균 생계비와 소득 및 순자산이 많은 경우, 자녀가 첫째일 경우, 자녀와의 동일시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과외학습비 마련방법 중 무리형과 종합형이 많고, 또한 이런 경우에 과외학습비도 많이 지출한다. 내핍형에 속하는 경우는 전업주부이고 강북에 거주하며 월평균 생계비와 소득 및 순자산이 적은 집단, 자녀가 둘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력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자녀에 대한 동일시 정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즉,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고 자녀에 대한 동일시 정도가 높아서 자녀와 개별화가 덜 되었고,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이 되는 가정은 무리하게 과외학습비를 지출하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고 본다.

여섯째, 가계소비지출곤란도는 과외학습비 지출이 1% 증가하면 1.9점 증가한다. 특히 과외학습비의 규모는 적지만 가계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서의 과외학습비로 인한 가계소비지출곤란도가 더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외학습은 경제적 계층과는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 가계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과도한 과외학습비 지출은 가계 재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입시제도와 부모의 가치관 및 학벌위주의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에 따른 가계소비지출곤란도는 무리형의 경우 제일 심하고 종합형은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곤란도를 많이 느낀다. 반면 여력형은 자녀와의 개별화가 비교적 잘 된 유형이므로 현재의 경제적 수준에 맞추어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녀의 중등교육기에 합리적인 소비지출이 이루어지려면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재무설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결론을 기초로 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성행하고 있는 과외학습은 입시를 위해서지만 상당부분은 학교교육의 불신, 즉 학교교육이 제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외학습을 줄이고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개인차를 고려하여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건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특히 학급 인원이 많은 현 상황과 교사 대 학생수의 과다 등 현실적으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교육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둘째,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 특히 고액과외현상은 부모의 높은 교육열에도 책임이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부모의 '자기자식 위주'의 이기주의적 자녀교육관을 개선시키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개별화 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가정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다양한 시설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교육 및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재무설계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고보선(1991). "가정경제안정도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김성희(1995). "인적자본으로 본 자녀에 대한 투자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3) 김순미(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권 2호, 103-117.
- 4) 김용재(1992). "가정환경에 따른 사교육 운용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5) 김은정(1993).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 수행-서울시 중년기 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김유경(1995). "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교육에 대한 계획과 수행",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김인숙(1995).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문숙재·김성희(1995).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의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권 4호, 301-313.
- 9) 박미령(1992).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모-자녀 문제,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한국가족학회, 서울:하우
- 10) 박상학(1992). 고교생 과외비용 서민 가계에 부담되고 있다, 한국인의 소비생활, 202-218.
- 11) 박평식(1984). "농가의 교육투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배순영(1991). "서울시 임차가계의 임대료 부담과 가계경제문제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동아일보, 1999년 4월 11일.
- 14) 신세호 외(1991). "과외수업 실태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 15) 양세정(1993). "주부의 취업이 가정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4권 2호, 17-28.
- 16) 여정성(1994). "기혼여성의 취업과 자녀출산에 관한 경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2권 3호, 71-83.
- 17) 옥선화 외 4인(1990). "현대 산업 사회에 있어서 40대 중산층 주부가 지각한 가정 생활의 체문제", 대한가정학회지, 29권 2호, 135-153.
- 18) 이정수(1974). "가정의 경제적 계층과 제3교육비용의 변인적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이춘희(1990). "국민학교 사교육비가 가계에 미치는 영향분석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0) 임정빈 외 7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II):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권 5호, 115-127.
- 21) 정영숙(1993). "가계의 소비지출 패턴", 소비자학연구, 3권 2호, 1-13.

- 22) _____(1996).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율과 경제적 복지-사교육비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7권 1호, 1-13.
- 23) 주영량(1992). “국민학생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 경향 분석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중앙일보, 1996년 9월 22일.
- 25) 진미정(1994). “중년기 여성의 어머니역할 수행 부담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6) 최승애(1985). “도시가정의 자녀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과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7) 최자영(1995). “도시가정의 재정적 사건, 대처전략 및 경제생활만족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8) 통계청(1996). 도시가계연보 1995.
- 29) 한겨레신문, 1996년 11월 11일.
- 30) 한국교육개발원(1999).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
- 31) 한국소비자보호원(1993). 국민 소비 행태 및 의식 구조 조사.
- 32) 현대경제연구소(1998). IMF 1년 ; 가정경제 어떻게 변화했나
- 33) Becker, G. S. 저 생활경제모임역(1994). 가족경제학, 한터.
- 34) Rachel Connelly & Peter Gottschalk (1995). “The Effect of Cohort Composition on Humam Capital Accumulation across Generation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3 No.1, 155-175.
- 35) Espenshade, Thomas, J. (1984). *Investing in Children*. The Urban Institute Press-Washington, D.C.
- 36) Leibowitz(1974). “Home Investments in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111-135.
- 37) Lino, M.(1990). “Expenditures on a Child by Husband-Wife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s*, Vol. 3 No. 3, 2-18.
- 38) _____(1991). “Expenditure on a Child by Single-Parent Families”, *Family Economics Reviews*, Vol. 4 No. 1, 2-7.
- 39) Martha Nall & Pat Zwaagstra Deck(1976). “Financial Problems of Urban Families”, *Home Economics Research J.*, Vol. 4 No. 3, 185-196.
- 40) Schultz, T. W. (1961).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merican Economic Review* 51, 1-17.